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1주일

하느님, 끊임없이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니, 저희가 하느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 아버지 사랑에 응답하여,
은 세상에 복음과 화해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가정
- 이우영(가브리엘), 김수연(율리안나) 가정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유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과 묵상을 강조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은 예수 성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습니다.

썰 기도 모임

- 일시 : 화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회관
- ☞ ‘묵주기도의 모후(대표 ; 이영민 엘리사벳)’와 ‘평화의 모후(대표 ; 정선식 베로니카)’가 각각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썰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공동체, 희생하는 공동체로 거듭 태어납시다.

평협 회의

- 일시 : 6/16(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미주 한인 체전

- 일시 : 6/22(금) ~ 24(일) 2박3일
- 장소 : 캔사스 시티 부대시설
- ☞ 캔사스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니 만큼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중남부 지구 사제 모임

- 일시 : 6/24(월) ~ 27(목) 3박4일
- 장소 :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성당

기타

- 오늘 Father's Day를 맞아 모든 아버지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 6월부터 저녁미사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깁니다.
- 지난 주, Holy Trinity ‘본당의 날’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48	513	156/166	40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찬(미카엘)	안광희(크리스토퍼)
	안지영(가타리나)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이원준(요 한)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예찬(미카엘)	안지영(카타리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가타리나)
차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김정애
차주	김경희, 안혜진, 김인자, 정연숙,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희영(가타리나)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6/02	83명	404불	1,210불
06/09	75명	365불	1,4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죄 많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이사 1,18 참조).

성화해설

시몬의 집에서의 그리스도

(다에릭 보우츠, 1440년, 베를린 국립박물관 소장)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의 집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르는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감히 용서를 청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여인의 죄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루카 7,50) 주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죄보다 믿음이 더 크고, 책망보다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1열왕 17,17-24 2사무 12,7ㄱ-10.13 <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

화 답 송 :



주 님 제 죄 의 잘못 을 용 서 해 주 소 서

- 복되다 그 죄 사하여지고 그 허물 씻어진이여.
주님께서 탓을 아니 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여 복되도다. ◎
- 제가 당신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아니 감추며
주님께 저의 죄악을 아뢰나이다 하였을제 제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나이다. ◎
- 너희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워하여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사람들아 모두 다 춤추며 기뻐하여라. ◎

제 2 독서 : 갈라 2,16.19-21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

복

음 : 루카 7,36-8,3<또는 7,36-50> <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



“신종섭 안드레아 신부 장례미사 강론”



저는 신종섭 안드레아 신부의 동창 이수한 시릴로 신부입니다. 제가 신종섭 안드레아 신부를 처음 만난 것은 소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주교님을 면담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다음날이었으니 1979년 10월 27일이었을 것입니다. 신부가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여덟 명이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은 추기경이 되신 정진석 니콜라오 주교님을 만났던 것이 었 그제 같은데 어느새 삼십 사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버렸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 품으로 안드레아 신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신학교 시절 우리 신종섭 안드레아 신부는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농구, 탁구, 마라톤 등 못하는 운동이 없었고 음악에 대한 조예 뿐 아니라 노래 실력도 수준급이었습니다. 그 실력을 사목에 접목해서 감곡 메곡성당에서 음악피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 감화를 준 사실은 여러 신자 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창 신부들이 모이면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곤 했는데, 저는 우리 안드레아 신부가 즐겨 부르던 ‘바윗돌’이라는 노래를 칭해 들곤 했습니다.

“찬비를 맞으며 눈물만 흘리고 하얀 눈 맞으며 아픈 맘 달래는 바윗돌, 세상만사 야속타고 주저앉아 있을 소냐, 어이타고 이내 청춘 세월 속에 묻힐 소냐, 굴러 굴러 굴러라 굴러라 바윗돌, 한 맺힌 내 가슴부서지고 부서져도 굴러 굴러 굴러라 바윗돌, 저 하늘 끝에서 이 세상 웃어보자...” 여기서 바윗돌은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묘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제 남은 우리가 친구 종섭이의 묘비를 보며 이 노래를 부르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우리가 다녔던 대구 남산동에 있는 대신학교에는 교정 주변에 성직자 묘역이 있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며 묵주기도를 바치다가 무심코 묘비를 보았는데 나란히 신부가 되고 1년, 2년, 3년만에 돌아가신 젊은 신부님들이 있었습니다. 문득 ‘아니 이렇게 데려 가시려고 그 오랜 시간을 신학교에서 고생을 시키셨나?’하는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날 며칠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의 생애가 떠올랐습니다. 3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생황까지 겨우 33년, 공생황을 사제의 삶이라 생각하면 겨우 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참 스승이십니다. 또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성인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생각이 납니다. 사제 생활 1년 남짓 그래도 그분은 우리 사제들의 수호성인 이십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도 생각 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4년의 사목생활, 그럼에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신부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제들의 모범이십니다. 살아온 시간

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섭아!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 보다 더 오래 살았고 더 오래 사제 생활을 했구나. 이제 며칠 후 6월 29일이면 우리가 신부된 지 21년이 되잖아. 우리가 소신학교에 입학하던 때가 1980년이니, 부르심에 응답한 세월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33년이구나. 그래 정말 오래 살았고 오래 사제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도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너를 입관하던 날, 가족들이 울며 너의 귀에 대고 속삭이던 말이 생생하구나.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지!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이제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은 곳에 가서 편히 쉬어. 사랑 하는 내 동생아!’

그래, 종섭아! 우리도 그래서 미안해.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해. 우리 동창들이 늘 네 편에서 있지 못해 미안해. 네 곁에 머물러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종섭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니? 내가 너보다 네 살을 더 먹었는데 수한아, 수한아 이름을 불렀지? 살아생전에도 맛먹더니 기어이 하느님 나라에서 내 형이 되고 싶어 그렇게 급하게 떠났니? 그래,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도 곧 따라갈게. 네가 못다 이룬 사제직은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 갚아 나갈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네가 먼저 입성했으니 다시 만나면 내가 형이라고 불러줄게.

미인은 박명이라는 말은 들어 보았는데 신부는 뭐가 박명인지 강론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다재다능한 것이 박명은 아닌지? 다재다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라 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마음이 박명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 나름 정의를 내려봅니다.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예수성심 대축일 곧 사제성화의 날이 있고, 성모성심 대축일이 있습니다. 사제의 맘은 예수의 맘이라는 성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은 내어주는 성모님을 닮은 사제가 신종섭 안드레아 신부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의사인 것을 빼고는 음악적 재능이나, 오지에서의 현자인 사목이나, 하느님 곁으로 떠난 나이 마흔 아홉이나 모두 이태석 신부님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아버님 어머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 이제 이처럼 아름답게 살다 간 신종섭 안드레아 신부를 하느님 자비에 맡겨 드립니다. 종섭아! 네가 좋아하던 바윗돌 가서처럼 한 맺힌 네 가슴 모두 굴러버리고 저 하늘 끝 하느님 나라에서 이 세상 향해 한 번 웃어보렴. 잘라라! 우리의 벗 신종섭 안드레아 신부...

- 청주교구 이수한 시릴로 신부 -



가능성을 보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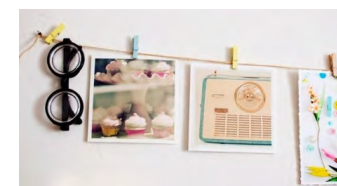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서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기억을 되찾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심사숙고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은 이미 닫혀 있지만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계속 얽매어 있다면 앞으로 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에 지 배받지 않으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몇 번 노력하다 실패한 후에는 다시 시도하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과거조차도 기꺼이 좋은 결과를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40.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표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행하신 놀라운 기적(표징)은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말씀과 더불어, 하느님 나라가 당신 안에 현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사도 2,22)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고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47항).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들은 성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표징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권유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믿고 청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청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적들은 성부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기적들은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548항).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굶주림, 불의, 병과 죽음 등 현세의 불행에서 해방시키심으로써 메시아의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인간적인 예속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노예 상태, 곧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549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